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한서 12:15)

자살예방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주일

생명경보등주간

자료집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이 땅의 상처입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Life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26-28

신 동 식 목사 (빛과소금교회)

창조가 보여주는 위대한 모습은 창조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닙니다. 창조의 절정은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 가운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창조의 위대함을 성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6-28]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이며 도덕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광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흠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여되므로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7]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혈통과 인종과 지역과 학벌과 부의 소유에 관계없이 사람은 그 자체로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놀라운 직무를 주십니다. 바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책임을 사람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책무를 문화명령, 창조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일하게 문화명령을 받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무의미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들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거룩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주신 것은 사람은 대리통치자로 삼기 위함입니다(창 2:15). 자신을 대신하여 창조계를 다스리게 하심입니다. 물론 다스리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조는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도시(계 21:1-3)에서 완성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여 가는

일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문화명령과 대리 통치자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특권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내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은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무너짐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치밀하였고 결국 인간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한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 3:23-24]

사람이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였고, 사람의 존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신의 존엄성을 성취하는데 죄가 그 일을 막아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 죽음의 먹구름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첫째,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현실이 죄인들에게 예비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나타난 두려운 현실입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 까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파는 파렴치한 일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자연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존의 관계가 아니라 대립의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넷째, 자기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깨어지고, 자신의 가치를 다른 것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정신적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우울증을 대표로 하는 질병들이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왜곡 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삶의 행복을 삼는 불행이 들어온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인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 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혼란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알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로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실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죄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1-4]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모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같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자신의 삶이 우울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참으로 무서운 계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형편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절하게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악한 음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사신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회복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창조의 명령, 문화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우리는 세상에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지금의 순간이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히 12:2].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존엄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 성 돈 목사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운영위원장, 실천신대교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25-26]”

얼마전 한 일간지 전면에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사진은 결코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잔히, 그리고 점점 우리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진은 한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위에 붙은 제목은 「대구 고교생 자살 7시간 전 '눈물의 엘리베이터' ...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아이는 기운이 없었는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죽음이라는 삶의 끝을 맞이하며 그 아이는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요즘 자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니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에서 자살은 사망원인 1위입니다. 40대와 50대에서도 자살은 사망원인 2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은 사망원인 4위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사람들은 자살로 죽습니다. 그 밑으로 당뇨병, 폐렴,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교통사고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질병입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많은데요. 그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는다면, 우리 주변의 당뇨병 환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뇨병 환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뇨병 환자는 자주 보시는데, 자살로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살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 손 내밀어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넘어갔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엘리베이터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셔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한 창조의 선물을

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창조되고, 존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설명하고, 생명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6:5). 여기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신의 살을 너희가 먹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살을 먹음이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롬8:2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는 그 기운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해도 안 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2. 죽음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궁금증이 풀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눅20:37)'.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다 그분의 자녀일 뿐,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한 순간에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것에서 해방을 얻으리라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날보다도 더 많은 날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지방 하나 넘는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분을 또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모습으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살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 되신 생명을 죽이는 일이며, 성령의 거룩한 일들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지은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렇게 죄 지은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면 너무나도 큰 고통일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 죽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살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뵈게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구원 역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쉽게 그들은 지옥에 갔다고 단정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짓는 많은 죄가 있는데 유독 우리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죄는 자살뿐입니다. 살인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간증도 하고, 신앙의 모범

이 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자살한 사람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를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가들이 가르쳐 주듯이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시 똑같은 이유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그분의 은혜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자살이라는 끔찍한 행위로 죽음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인합니다.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기는커녕 너무나 쉽게 단죄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에게 손 내밀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그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가졌다면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야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생명의 빛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동영상 (YouTube/이승복박사-예수님을 만나 불행은 행복으로) -

동행 in 愛

창 28:10-19

김 주 선 목사 (라이프호프 청소년교육위원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들판에서 짐승을 키우며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동생 야곱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 다.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이 배가 고프는 상황이었지 요. 집에 와보니 동생 야곱이 팔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팔죽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면 혼자 먹는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식구들끼리 함께 먹습니다. 어찌보면 야곱은 형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에서 야곱은 팔죽을 줄테니 나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산을 상속받는다거나 아버지의 뒤를 이려 족장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팔죽 한그릇과 비교할만한 가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욕심쟁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안 에서가 참 어리석다 싶긴 하지만, 에서는 '설마 정말이겠어?' 하는 마음으로 팔죽이 먹고 싶으니까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너 가져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필같은 물건도 아니고 '어찌됐건 내가 형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었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별것 아닌 팔죽 한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거기서 욕심을 멈추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의 시간이 다 되어 거의 눈도 보이지 않을 만큼 늙은 어느 날이었습니 다. 아버지 에서를 불렀습니 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큰 아들인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줄테니 네가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오라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상황을 말하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잡아 요리하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몄습니 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인척하고 아버지 앞에 간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형인척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형이 받아야했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 다. 아버지 이삭에게 마음껏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의 천막에서 나올 때쯤 에서가 짐승을 잡아 돌아왔고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이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훔쳐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에서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 사용한 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동을 하기는 자기가 했지만 형 누나가 무서워 벌벌 떨겁니 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겠지요. 야곱은 정말 도망을 갔습니 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란 곳으로요.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500km의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 걸어가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대에서 '행군'이란 이름으로 훈련을 하는데 이 때 하루종일 걸으면 30km정도 걷는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처럼 열심히 걸어도 500km면 17일을, 날이 더해 갈수록 체력의 한계가 올테니 대략 20일 정도를 열심히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야곱은 살던 브엘세바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겠는 들판을 하염없이 걷다가 밤이 되었고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웠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말 한마디 붙일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며칠을 걸었기에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 말고는 빛이라고는 없는 암흑입니다. 간간히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형이 쫓아와서 날 죽이지는 않을까? 어디선가 들짐승이 뛰어드는 건 아닌가? 도적떼들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극한의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잠든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앞뒤 좌우 어디 하나 빛이라고는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형 에서, 들짐승, 도적떼 등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이 야곱의 마음을 ‘괴롭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네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뒤좌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아멘!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며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제가 성경말씀을 변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15절의 말씀에 있는 ‘나’와 ‘너’를 구체적인 단어로 대입시킨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칠혹같은 암흑과 형에서의 추격, 들짐승의 공격, 도적떼의 습격의 위험과 두려움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좌절해 있을 때에도, 성적문제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조차 마음 기댈 곳이 없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부릴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 주십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내 마음 속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다 말할 수 없고 그들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또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곳에 돌을 쌓아 벤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 언제 어디나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조차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계시며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넉넉하고 든든하게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 비록 그 욕심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과정에서 야곱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혼자 두렵고 무섭고 외로움에 떨던 그 들판에서 야곱

을 만나주셨고 야곱에게 계획해 주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한 야곱의 일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야곱의 생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두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을만큼 자랑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자꾸 실수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머리가, 몸이 잘 안 따라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투성이라며 매일 평가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키는 몇 cm인지? 몸무게는 몇 kg인지? 성적은 몇 등인지? 집은 몇 평인지? 그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보이는 우리의 스토리를 보십니다.

두려움만 가득한 들판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과 속상함을 함께 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땅바닥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더 이상 어떻게 더 사랑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이 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벼랑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헌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가 아닌, 함께 꿈꾸고

창 28장 10-22, 빌 4:7, 고전 10:13

조 은 하 교수 (라이프호프 청소년교육위원회/목원대학교수)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7)

》》》 이야기 속으로 이승복 박사님을 아시나요? [동영상참조]

“끝인줄 알았는데 시작이었다.”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이다. 한국인 의사 로버트 리(Robert Lee). Robert보다 이승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그는 미국내 단 두 명뿐인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중 한 명으로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병동을 휠체어를 통해 움직이는 의사이다. 열정과 자신감을 지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재활의학과 의사인 그의 모습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며, 그와 환자들 간에는 정상인 의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전해진다.

전미 올림픽 상비군의 촉망받는 체조선수였던 그가 훈련 도중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자가 된다. 18살의 좌절된 꿈,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미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었다.



◀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병동의 환자들은 “닥터 리를 만난 것은 축복”이라 말한다. 이승복 박사는 아직도 수동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전동 휠체어에 편하게 앉아서 버튼을 조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게을러지지 않겠다는 저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과연 거기에서 끝일까? 그러나 주위의 도움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캠퍼스 선교사를 통해 고통의 가장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으로 매진하게 된다. 장애인이 된 후 그의 이력은 매우 화려하다. 뉴욕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콜럼비아대 공중보건학 석사를 마쳤으며, 명문 다트머스대에서 본격적인 의대공부를 시작, 하버드대에서 인턴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과정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손은 굳은살로 채워져 갔고, 그를 돕던 어머니마저 쓰러져 중풍환자가 된다. 그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자신의 휠체어로 몰고 다니면서 어머니를 돕기도 한다.

모든 고통의 자리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부터 그의 생의 새로운 시작을 펼칠 수 있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수다 Talk, Talk, Talk.**

1.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감명 깊었나요?
2. 그가 삶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야곱을 생각해 보아요.”

혼자 떠나야 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챈 자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더 받고 싶다는 욕심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까지도 하였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된다. 정든 고향과 집과 부모와 형제를 떠나 그는 외로운 이방인이 된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돌을 가져다가 누워 자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위에 서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4-15)

그때 야곱은 새롭게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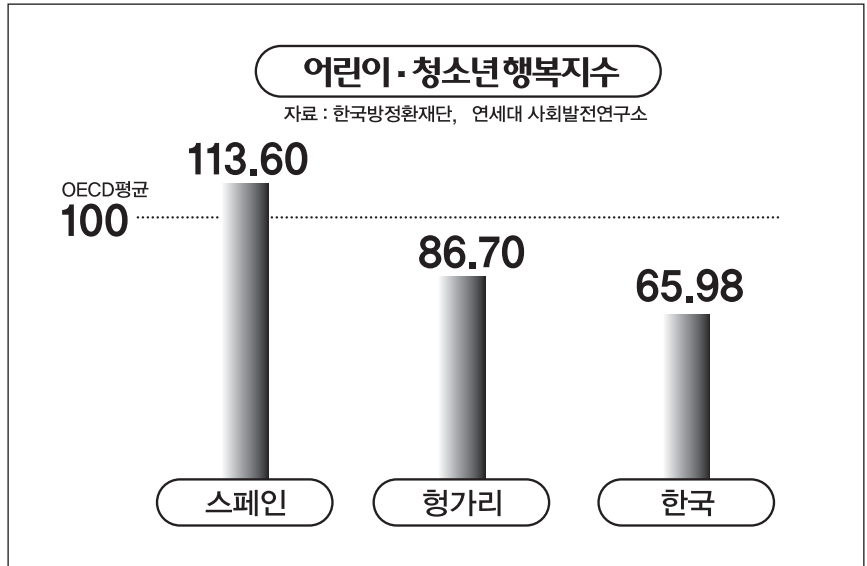
우리의 삶의 오늘의 현장 속에, 나의 고통과 근심 속에, 나의 좌절과 방황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비록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말씀과의 수다 Talk, Talk, Talk.**

1.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잘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 광야의 밤을 지낸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

2011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한 「2011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조사대상 OECD 23개국 중에 한국이 3년 연속 꼴찌를 하였다. 1위인 스페인보다 47.62점 낮았고 평균에서도 35점 가량이나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치열한 입시 스트레스, 부모들과의 소통의 부재, 외모지향적 사회적 풍토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불만족 등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요인들로 지목되었다.



나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그래서 말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안고 있는 문제들이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뇌’가 공사 중인 시기이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어른들보다 훨씬 심하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일들이 삶의 벼랑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또한 ‘상상속의 청중’을 의식하는 시기이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몰입하기도 한다. ‘자기만의 우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자신의 일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처절하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이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내가 왜 이럴까?”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 아이는 왜 저럴까?”하는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만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들의 수다 Talk, Talk, Talk.**

1. 여러분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최근 가장 힘들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2. 우리 삶의 좋은 일들과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10가지로 기록해 보세요.

“고통은 신이 건네준 사랑의 증거이다. 고통은 눈을 밝게 해준다. 고통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페터 제발트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中-